

# 나주시, 어린이·청소년 100원으로 버스 탄다

교통비 절감·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만 6~18세 대상 3월부터 할인 적용  
교통카드 사용시 혜택 적용 조건  
“수요자중심 대중교통 정책 발굴”

나주시가 3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내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춘다. 요금 인하를 통해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3월부터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00원 버스는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을 통한 교육·교통비 부담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교통복지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만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관내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 시내·마을·급행·순환·콜버스)를 100원에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시내버스 요금은 어린이는 750원, 청소년은 1200원으로 내달부터 각각 650원, 1100원이 할인돼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간 요금이 적용되는 시계 외 997번, 998번, 999번, 160번, 161번 버스는 기본요금 100원에 구간 요금만 추가된다.

나주-광주 송정역 구간 160번 버스를 예로 들면 청소년은 기존 1750원에서 700원, 어린이는 1100원에서 500원만 내면 된다.

광역버스 탑승 시엔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기본요금 1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간 요금 납부를 위해 버스앞문으로 승하차해야 한다.

가급적 어린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길 권장하며 구매와 충전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하면 된다.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급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으로 교통약자인 청소년과 어린이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 신안소방서, 현장 대응력 강화



신안소방서가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신안소방서는 도서지역이 많은 관내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전 직원이 재난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 단말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말기는 기존 무선 방식에 비해 더욱 선명한 음질을 제공하고 음영지역이 대폭 감소된 장점이 있으며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 문자 전송 등도 가능하다.

그동안 도서지역 재난 상황에서 통신 음영지역으로 인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어왔으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으로 입체적이고 즉각적인 현장 파악·대응이 가능해졌다.

유은재 신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 이후 전 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최상의 통신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다문화가족 대상 종합검진비 지원 무안군, 1인당 20만원 한도

무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관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 대상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대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시행이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이며, 생애 1회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10%를 제외하고 지원한다.

희망자는 종합건강검진 후 검진확인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희망자는 서둘러 검진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무안=김행연 기자



함평군 해보면 새마을부녀회들이 붕어빵을 만들고 있다. 해보면 부녀회는 13년째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관내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나눠주고 있다.

## 함평군 해보면 새마을부녀회, 13년째 붕어빵 나눔

함평군 해보면 새마을부녀회가 13년째 붕어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일 해보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8일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붕어빵을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30여명의 해보면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참여해 밀가루 반죽과 팥앙금을 직접 준비하고 붕어빵을 정성껏 구워 관내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배부했다.

김남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정성껏 구운 붕어빵이 작지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가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희 해보면장은 “뜻깊은 나눔을 위해 봉사하신 회원분들의 봉사 정신에 감사드린다”며 “해보면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영광군, 내달 10일부터

영광군은 다양하고 수준 있는 문화강좌 향유와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을 위한 취업·창업 프로그램 개설 강좌는 △한식조리사(실기) △식물관리사(3급) △인지활동보육복지지도사(2급) 과 취미·교양 프로그램 △드림 △컬트·자수 △파크골프(기초반) △명리학·관상 △꽃꽂이 △홈미싱(기초·리폼) △그리기(기초스케치·채색) △화서각 △스마트폰야간촬영방법 등 15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96명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월 10일부터 3월14일까지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에서 1인 2과정 이내 과정별 선착순 방문 접수를 받는다.

교육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과목별 수업시간 및 수업 내용은 영광군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문화센터(061-353-5253) 또는 영광군 가정행복과(061-350-5549)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 신안군, 부유식 해상풍력 공공주도 단지개발 조성 순항

### 수산업 공존 방안 제시

신안군은 최근 부유식 해상풍력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해당 용역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환경성, 해상교통 안전성, 군사 작전지역 등 사전 인허가 검토를 통해 발전단지 적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배치 및 단지설계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보고회에서는 사전 인허가 검토를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대상 해역 8068㎢(40GW 가능한 면적)에서 2300㎢, 10

GW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수심 50-100m가 최적의 수심 여건이다. 신안군의 대상지역은 평균 수심 70m이다.

또 신안군 해상풍력 대상 해역은 대한민국 영해한계선 근처로, 흑산면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일원에 관리 전진기지를 설치해 영해한계선을 관리함으로써 영해 수호의 중요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 기체에 CCTV를 설치해 해양생태환경 등도 관리·관찰

할 예정이다.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에서는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 및 다양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제시해 어업인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유지 보수항의 입지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산업으로 매력적인 미래 산업”이라며 “고성식 해상풍력에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의 남은 용역도 성공적으로 맞춰 세계 최대 18.2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 곡성군, 교육비 70% 지원

곡성군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사(2급) 양성과정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정신·육체적 건강을 유지·증진·회복하는 모든 농업적 활동이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교육, 치유농업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치유농업사(2급)는 국가자격증으로, 취득 기준은 치유농업사(2급) 양성기관(전국 19개 지정)에서 실시하는 교육 142시간(이론 94시간, 실습 48시간)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1차, 2차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관내 첫 치유농업사 1명을 배출했다. 곡성군은 치유농업사를 활용해 관내 치매환자, 우울·스트레스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81)와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전남도립대학, 전주기전대학 등)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을 통한 최종 교육생 선발은 양성기관에서 선정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양성기관 교육생 합격 후 교육을 수료한 자 중 5명을 선발해 학비 140만원 중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 치유농업사를 발굴해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치유농업 발전과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김대명 기자